

대학의 학생창업에 미치는 창업동아리의 역할

원치윤*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대학 내에서 확산되고 성공한 학생창업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학생창업으로 이어지는지 국내 4년제 대학 169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의 창업동아리는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와 대학은 매년 창업동아리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창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에서는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학생창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의 창업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한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실제로 학생창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대학일수록 학생창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 창업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는 창업동아리 활동과 학생창업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 창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높은 학교일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험적 학습을 통한 동아리 활동과 실습형 교육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창업 동아리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내 활발한 창업 동아리 활동의 질적 향상과 실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창업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학생창업,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경험적 학습

1. 서론

최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학생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Etzkowitz et al., 2000; Izedonmi & Okafor, 2010). 따라서, 정부와 국내 대학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생창업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학생 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학생창업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의 학생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와 대학의 창업 지원 및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창업 결정요인이 무엇이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가지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홍, 2012; 홍효석·설병문, 2013; O'Shea, et al., 2008)들과 대학의 학생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목영두·최명길, 2012; 이재훈, 2013)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비교적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일컫는 창업교육 외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연구들은 창업교육과 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Pittaway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창업 교육에 대한 정규 과정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간주되어 오던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학생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 wonzzang9230@naver.com

** tjbaenol@gmail.com

는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69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 동아리의 역할과 중요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동아리를 “대학생들에게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시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갖춘 미래기업가를 양성하고자, 전국 각 대학총장(학장)이 승인한 대학 내의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학생 동아리는 평소 관심가지고 있는 화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만남을 갖는 자율적인 학생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Pittaway, et al, 2015).

국내 418개 대학의 창업활동 현황을 파악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창업 동아리를 보유한 학교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해 283개교이며, 창업동아리 수는 5,596개가 운영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 수는 41,44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창업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표 1> 2017년 창업동아리 운영현황

구분	보유 대학 수	창업동아리 수	회원수
대학교	160 개	4,451 개	26,502 명
전문대학	123 개	1,145 개	14,938 명
전체	283 개	5,596 개	41,440 명

동아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Rubin, et al., 2002)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적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Cox & Goff, 1996; Evans & Evans, 2001). 그러나 Pittaway, et al.(2015)는 학생동아리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활동으로 간주되지만 이로 인한 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연구들은 창업교육과 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몇몇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신정신·이재은(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양영석·김명숙(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활동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창업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홍효석·김병문(2013)은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창업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실제 창업계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할수록 학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정부의 대학 학생창업 지원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창업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대학 내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학 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선도대학사업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과 같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이 학생창업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an Geenhuizen & Soetanto(2009)는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대다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창업과 같이 자본이 부족한 초기 창업 단계일 경우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Kim et al., 2006; Stuart & Sorenson, 2003). 정부의 창업지원은 실제로 기업가정신 발전에 기여를 하며(Dana, 1987),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교순·전인오, 201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정부의 대학 창업 지원 규모는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 시킬 것이다.

2.3. 창업교육과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중요성

대학의 창업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 의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4). 창업교육은 간접적으로 창업을 접할 수 있기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Ajzen, 1991; Wu & Wu, 2008).

<표 2> 상관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6	7	8
1. 학생창업	1							
2. 재학생 수	0.421*	1						
3. 학교 유형(더미)	-0.032	-0.111*	1					
4. 창업경진대회	0.486*	0.318*	-0.014	1				
5. 창업강좌	0.294*	0.358*	0.139*	0.391*	1			
6. 창업동아리	0.482*	0.500*	-0.026	0.407*	0.332*	1		
7. 정부지원 규모(log)	0.247*	0.339*	-0.132*	0.209*	0.108	0.320*	1	
8. 실습형 강좌	0.261*	0.103*	-0.042	0.143*	0.088	0.139*	0.154*	1

n=494, *p<0.05, (더미변수: 국(공)립(국공립대학교 1, 사립대학교 2))

창업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경험의 변화를 통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러한 지식은 경험을 하며 얻게 되는 결과로 설명한다(Kolb, 1984). 따라서, 경험적 학습은 집단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 또는 가치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Baker et al., 2005). 이러한 경험적 학습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과 실무 현장과 같은 현실 세계(real-world)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참여해보는 것이다(Defillippi, 2001; Burgoyne & Hodgson, 1983).

몇몇 연구자들은 경험적 학습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의 과정으로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cLaughlin & Thorpe, 1993; Mumford, 1994). 또한 경험적 학습은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형태로 간주되며(Biggs, 1993; Entwistle & Ramsden, 1983), 종종 창업 교육을 포함한 많은 교육 영역에서 권장되고 있다(Gibb, 2002).

박수홍 외(2008)는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 과정인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팀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 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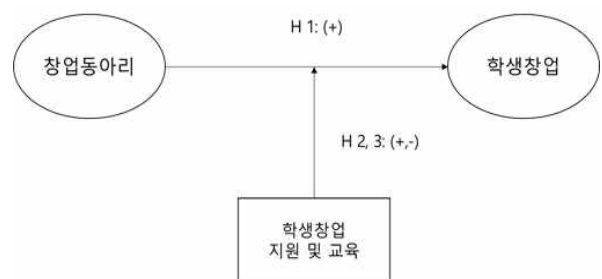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는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 시킬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학생창업 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전국 대학교 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준년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180개의 4년제 대학을 확인하였으나, 자료가 누락된 대학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9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494개(대학-년도)의 샘플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학생창업이다. 전국 대학 공시정보에서 조사된 각 대학의 해당년도에 발생한 학생창업자수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3.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대학의 창업동아리이다. 창업동아리는 각 대학의 해당년도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창업

동아리 수를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3.3.3 조절변수

본 연구는 정부지원 규모와 실습형 창업강좌를 조절변수로 한다. 정부지원 규모는 대학의 창업관련 정부의 지원금액의 규모를 나타내며 자연 로그를 취한 값으로 계산하였고, 실습형 창업강좌는 대학 내 전체 창업강좌 가운데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표 3>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SE	β	SE	β	SE	β	SE
상수항	0.745	(0.701)	0.645	(0.732)	-6.644†	(0.085)	-0.121	(0.948)
재학생 수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학교 유형 더미	-0.071	(0.943)	-0.116	(0.903)	1.27	(0.203)	0.41	(0.656)
창업경진대회 개최 횟수	1.126**	(0.00)	0.906**	(0.00)	0.542**	(0.002)	0.854**	(0.00)
창업강좌 수	0.014	(0.246)	0.009	(0.437)	0.001	(0.922)	0.009	(0.423)
창업동아리			0.087**	(0.00)	0.139	(0.27)	0.037†	(0.069)
정부지원 규모					0.511†	(0.077)		
창업동아리 × 정부지원 규모					-0.007	(0.465)		
실습형강좌 비중							-0.3	(0.881)
창업동아리 × 실습형강좌 비중							0.196**	(0.001)
N	482		482		299		461	
WaldChi2	174.9939		221.6022		68.04836		240.8092	

† $p < 0.1$, * $p < 0.05$, ** $p < 0.01$

3.3.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대학의 학생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학생 수, 학교 유형(더미), 창업경진대회 개최 횟수, 대학 내 전체 창업강좌 수와 같은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하였다.

3.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와 시계열(time-series) 자료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개체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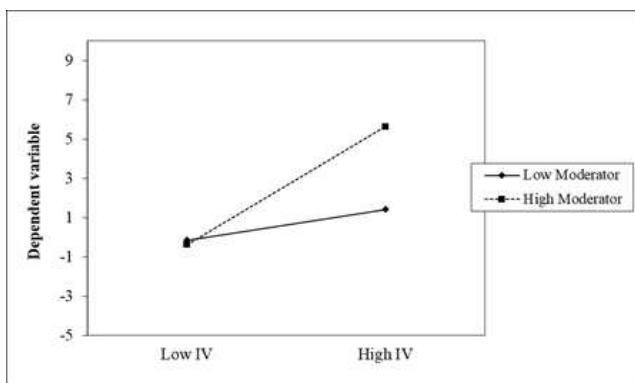
인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 모델 중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은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정효과(FE) 모델과 랜덤효과(RE) 모델보다 더 높은 강건성을 가진다(Liang & Zeger, 1986). 또한, 종속 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Ndofor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3>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포함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2는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가설 1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할수록 실제 학생창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델 2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많을수록 학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7, p<0.01$).

모델 3과 4는 각각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설 2는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 규모가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분석 결과 실제로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 규모는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 관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모델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96, p<0.01$). <그림 2>는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의 조절효과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의 관계는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전국 169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동아리가 실제로 학생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과 경험적 학습에 대한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실제로 학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창업의도 및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주요 요인으로써 창업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습형 창업강좌를 통한 경험적 학습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창업동아리와 실습형 창업교육의 연계를 통한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5.2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창업동아리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창업동아리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험적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실습형 창업강좌를 통한 경험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9개 대학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창업동아리 연구의 대부분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분석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 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와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효과성에 대해 학생창업으로 연결되는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창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창업지원 및 교육의 효과 제고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와 창업교육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창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론적 교육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실습형 창업교육을 통해 경험적 학습이 중요하므로 대학은 보다 다양하고 실제 창업환경이 반영되는 경험과 교육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박수홍·정주영·류영호(2008). 창의적 공학교육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교수활동지원모형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0(2), 184-200.
- 신정신·이재은(2018).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5), 41-54.
- 양영석·김명숙(2015).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이 창업의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33-240.
-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임교순·전인오(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422-432.
- 홍효석·설병문(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ker, A. C., Jensen, P. J., & Kolb, D. A.(2005). Conversation as experiential learning. *Management learning*, 36(4), 411-427.
- Biggs, J.(1993). What do Inventories of Student Learning Processes Really Measure? A Theoretical Review and Clarifi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1), 3-19.
- Burgoyne, J. G., & Hodgson, V. E.(1983). Natural learning and managerial action: A phenomenological study in the field setting.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0(3), 387-399.
- Cox, D. R., & Goff, D. C.(1996). Starting and operating a student investment club. *Financial practice and education*, 6(2), 78-85.
- Dana, L. P.(1987).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re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ve commonwealth nation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7, 573-583.
- DeFillippi, R. J.(2001). *Introduction: Project-based learning. reflective practices and learning.*
- Entwistle, N. J., & Ramsden, P.(1983). Understanding student learning. London: Croom Helm.
- Entwistle, N., & Tait, H.(1990). Approaches to learning, evaluations of teaching, and preferences for contrasting academic environments. *Higher Education*, 19(2), 169-194.
- Etzkowitz, H., Webster, A., Gebhardt, C., & Terra, B. R. C.(2000).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future: evolution of ivory tower to entrepreneurial paradigm. *Research policy*, 29(2), 313-330.
- Evans, M. D., & Evans, D. M.(2001). Community service project planning for ASCE student chapters/clubs.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Practice*, 127(4), 175-183.
- Izedonmi, P. F., & Okafor, C.(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0(6), 49-60.
- Kim, P. H., Aldrich, H. E., & Keister, L. A.(2006). Access (not) denied: the impact of financial, human, and cultur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entry in the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27(1), 5-22.
- Kolb, D.(1984).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Ed.*
- Liang, K. Y., & Zeger, S. L.(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73(1), 13-22.
- McLaughlin, H., & Thorpe, R.(1993). Action Learning-A Paradigm in Emergence: the Problems Facing a Challenge to Traditional Manage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4(1), 19-27.
- Mumford, A.(1994). A Review of Action Learning Literature. *Management Bibliographies and Reviews*, 20(6/7), 2-16.
- O'Shea, R. P., Chugh, H., & Allen, T. J.(2008).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university spinoff activity: a conceptual framework.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3(6), 653-666.
- Pennebaker, J. W., Francis, M. E., & Booth, R. J.(2001).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LIWC 2001. Mahwa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71(2001), 2001.
- Pittaway, L. A., Gazzard, J., Shore, A., & Williamson, T. (2015). Student clubs: experiences in entrepreneurial learning.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7(3-4), 127-153
- Rubin, R. S., Bommer, W. H., & Baldwin, T. T.(2002). Using extracurricular activity as an indicator of interpersonal skill: Prudent evaluation or recruiting malpractice?. Human Resource Management: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in alliance with the Socie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41(4), 441-454.
- Stuart, T., & Sorenson, O.(2003).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spatial heterogeneity in founding rates and the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2, 229-253.
- Van Geenhuizen, M., & Soetanto, D. P.(2009). Academic spin-offs at different ages: A case study in search of

- key obstacles to growth. *Technovation*, 29(10), 671-681.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Zhang, Y., Duysters, G., & Cloudt, M.(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3), 623-641.